

<div>살고싶은도시 함께만드는인천</div>		<div>보도자료</div>		<div>수도권매립지 종료</div>	
		<div>배포일자</div>	<div>2022년 1월 6일(목) 총 2매</div>		<div> 환경특례도시 인천</div>
<div>담당 부서</div>	<div>지방세정책 담당관</div>	<div>담당자</div>	<div>• 소득소비세팀장 • 담당자</div>	<div>김철동 ☎440-1621 엄춘희 ☎440-1624</div>	
<div>사진</div>		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</div>		<div>참고자료</div>	<div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</div>
<div>보도시점</div>		<div>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div>			

## 인천시, 전국최초 인공지능(AI) 기술로 지방세 처리 획기적 '개선'

- 올해부터 지방세 수납부서 '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' 도입 -
- 전국으로 확대 개선 기능, 인공지능(AI) 신기술을 세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될 것 -

인천광역시는 전국최초로 “인공지능(AI) 기술을 적용한 지방세 수납부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”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지방세 업무는 위택스([www.wetax.go.kr](http://www.wetax.go.kr)), 인천시 이택스([etax.incheon.go.kr](http://etax.incheon.go.kr))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, 고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일부 신고·납부 세목(지방소득세, 주민세 종업원분 등)의 경우 여전히 비OCR 수납부서에 의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.

이에 인천시는 인공지능(AI) 기술(Deep Learning)을 적용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도입해, 수납부서 판독데이터를 자동 과세등록 후

자동 수납데이터화 함으로써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수작업 전산 입력 과정을 없앴을 뿐만아니라, 기존 수납집계 반영이 수납 후 13일~23일 소요되던 것을 당일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. 또한, 디지털 이미지 전송으로 종이서류의 이동도 없애 탄소발생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.

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“지방세 수납부서의 수작업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,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, 향후 인공지능(AI) 신기술을 세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